

1. 7·8월 노동자 대투쟁 앞에 소모임 있었다

1987년 8월 18일 울산공설운동장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현대엔진, 현대미포조선, 현대정공, 현대중전기 등 6만여 노동자들과 3,000여 가족들이 모였다.

이들은 ‘나 태어나 이 강산에 노동자 되어……’ 등의 노래를 부르며 16km 행군 끝에 이 운동장에 당도했다. 대열 길이가 4km나 되어 그 대열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전날 전경과의 마찰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것을 보고 현대그룹 노동자들은 덤프트럭, 소방차, 카고트럭, 지게차 등을 수도 없이 끌고 나왔다. 이 중에는 샌딩머신 차도 있었다. 이 샌딩머신 차에 전경들은 겁을 먹었다.

7·8월 노동자 대투쟁의 하이라이트이다.

이날 집회는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노동부 차관이 비행기를 타고 급거 내려와 합의서를 발표하게 된다. 서울로 올라간 현대중공업 노조팀들도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노조 인정’의 확답을 받아낸 뒤 축배를 들었다.

전날인 8월 17일 아침 현대엔진 노동자 2,000여 명은 현대중공업 정문을 향했다. 현대엔진 노조 교육선전부장 오종쇄가 정문에 설치된 철책 위로 올라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힘과 재물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억압의 상징인 저 철책을 넘어야만 합니다!” “와아!” 정문 돌파는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어 10km 밖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1,000여 명이 중공업 운동장까지 행진해 왔다. 현대그룹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연합 집회와 시위를 한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물론 주력은 현대엔진이 포함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었다. 현대그룹 노조협의회 권용목 의장을 선두로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정문을 통과해 남목 삼거리까지 시가행진을 해나갔다.

울산현대그룹에서 시작된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그 전부터 있었던 작은 소모임들에서 시작되었다. 1년 전부터 현대엔진과 현대자동차에서는 현장에 기반을 둔 소모임들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노사협의회위원이나 소위원 또는 후원회원 등을 통해 일상 활동을 강화해 현장 기반을 확보해갔다. 소모임과 일상활동이 6.29 선언이라는 외적 상황과 함께 결합하여 현대엔진에서는 1987년 7월 5일 노조가 결성됐다. 여기에는 권용목(위원장), 사영운(사무장), 오종쇄 등이

앞장섰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상범(현대자동차 2대 노조위원장) 등이 노조 결성에 큰 역할을 했다.

필자는 1985년 말, 당시 울산 YMCA 이상희 간사로부터 “근로자 소모임이 있는데 울산에 와서 노동법 강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현대엔진 권용목과 현대자동차의 이상범, 하인규, 금요섭, 김동철, 전한수 등을 만나서 10년간의 살아온 이야기 등을 주제로 소모임을 시작했다. 이들은 울산만 반대편의 화학공단을 천당, 자신들이 있는 곳은 지옥이라고 불렀다. 당시 화학공단은 고임금에 4조 3교대 사업장이었지만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 있는 만 반대편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인 맞교대 사업장이었다.

공고 출신인 권용목은 당시 현대엔진의 반장이었는데, 이상범 등 평근로자들은 반장이라는 직책에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사실 반장이건 심지어 사무적이건 같은 근로자인데 이런 차이가 차별이 되고 감정을 상하게 한다. 또한 고졸 고퇴 중졸과 같은 작은 학력차이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의 모임이니 이제부터라도 함께 공부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대졸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직급이나 학력 차이가 차별이 되면 소모임 활동이나 노동자의 단결에 저해 요인이 된다. 보통 근로자들이 마음속에서는 조·반장이 되거나 학식이 있기를 원하고 또 조·반장이 근로자 입장에 서면 평근로자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마

음을 터놓고 논의를 했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고 소모임 활동은 노동법 공부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노동법 공부 모임을 하면서 현장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일상활동부터 시작해야 작업장 전반을 이해하고 또 노조 결성까지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항상 '단결이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다'라는 신념을 갖자고 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 결성은 1987년 7월 24일이 분기점이었다.

7월 24일, 마침 울산성당에서 필자를 강사로 노동법 공개 강연이 잡혔다. 강연 내용은 간단했다. 헌법 33조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와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를 해설했다. 특히 자주적 단결권에서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가방끈도 짧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 뭉쳐서 단결하는 것이 바로 자주적인 단결이라고 이야기 했다.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주체가 된다는 법 조항은 근로자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법이 보장한다는 뜻이다. 즉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말들이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린 것 같다. 사실 필자는 이런 강연을 수 없이 많

이 했다. 7·8월 대투쟁 이후에는 1년에 300회 이상 한 것 같다. 그날 밤 시측이나 정보 당국의 관심이 온통 울산 성당으로 모인 틈을 타 현대자동차에서도 노조가 결성되었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조 결성에 자극을 받아 현대미포조선이 7월 15일 저녁 울산노동회관에서 노조 결성식을 하는 등 울산 지역의 근로자들 속에 노조 결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에 대응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7월 21일 어용 노조를 결성했다. 당시 현대 엔진은 2,000여 명인데 현대중공업은 2만 8,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장이었다.

현대엔진 권용목 노조위원장은 계간지 『새벽』 2호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사실상 어느 면으로 보나 어용 노조임이 분명하였으나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다. 모든 근로자들이 술렁거리고 전전공공하던 차에 울산사회선교협의회 주최로 강연회가 있다는 전단이 뿌려졌다. ‘노동법과 노동조합’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많은 노동자들의 교본이 된 『노동법 해설』의 저자 장명국 씨의 강연회였다. 새로운 돌파구에 한참 목마르던 터라 어떤 해결책을 기대하며 현대그룹의 많은 노동자들이 미어터지도록 모여들었다. 삼복더위에 500~600 명의 노동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차 꼭 한증탕 같았지만 당면문제가 있는지라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듣고, 강연 후 쏟아지는 질문과 답변이 너무도 진지했다. 주로 중공업의 어용 노조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구체적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공개장소

란 제약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할 수가 없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 1층 교리실로 따로 모여 앞으로의 활동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중공업에서 노조 결성의 뜻을 품었던 여러 팀이 비로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40여 명의 핵심 멤버들과 장명국 씨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흥분한 근로자들이 증구난방으로 의견이 제시되는 판이었으므로 현대중공업의 김호충 과장이 사회를 자원하여 질서를 잡아갔다.

김 과장은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조선 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우수한 인재로서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과 대학동기이고 친구이지만, 진심으로 노조 결성을 지원했던 인물이다. …… 장명국 씨 강의로 구심점을 찾은 대책위원들은 26일(일요일)에 울산성당에 모였다.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정식으로 ‘현대중공업 노조 개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장에 김필수, 사무장에 이재식을 선임하고, 김진국, 정병모, 장세근, 김형권, 이채석, 조성훈, 박우신 등 11명을 대책위원으로 선출했다(일명 11인 대책위원회)(계간지 『새벽』 2호, 209-210쪽).

현대중공업 노조의 역사는 사실 7~8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사무직이었던 이민우 과장은 일찍이 미국 노동운동 비서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현장 부서원들과 소모임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1979년 11월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80년 3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원직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그를 서울 본사로 발령냈다.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5월 18일 일요일 저녁 80명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

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하필 그 전날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에 반발해 노조 결성 당일인 5월 18일은 광주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이민우 과장과 동료들은 계엄령 상태에서는 집회 허가가 있어야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 울산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울산경찰서장은 “광주에서 국가변란이 일어나서 집회를 할 수가 없고 당신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이 사측은 이 과장을 해고시켰고 오직 외로운 법정투쟁만 전개되었다. 당시 분위기에서 노동조합 결성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필자는 이민우 과장과 동년배 친구였다. 사실 이 친구 때문에 석탑출판사가 만들어졌다. 그는 해고되어 생활이 어려웠다. 필자는 1978년에 인삼제품 수출업을 하여 돈을 벌었고 당시 수배중인 김근태 선배의 권유로 금성냉동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즈음 해직 언론인들은 번역출판으로 밥벌이를 할 때였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이 친구가 좋은 책을 번역할 테니 출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침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최영희는 가장 필요한 것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4학년 때 근로기준법을 한글로 고치는 작업도 해봤고 여성 근로자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쳐봤지만 마땅한 교재가 없어 안타까워하던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YH사건 이후 도시산업선교회는 교인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도산에 가면 도산한다’는 정부와 언론의 홍보로 근로자의 발길도 딱 끊어졌다. 노동자들과 새로운 합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을 만

들어야 했다. 노동법이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노동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책을 만들자. 지금까지 현장에서 갈구하던 모든 것을 담아보자. 퇴직금 받기, 미지급 수당 찾기, 노조 결성하는 방법, 서류 만드는 방법, 해고 구제방법, 산재 근로자의 답답함까지 풀어주는 책. 책을 보고 문의하는 사람에게 무료상담을 하자! 책 뒷면에 무료상담 광고도 크게 하자. 그러나 계엄으로 출판사 등록이 금지되어 만화 출판사인 석담을 인수해 최영희가 대표가 됐다. 최영희와 나는 함께 『노동법 해설』 집필을 시작했고 2년 후 1982년 10월 20일 초판이 나왔다. 집필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운 부분은 지적하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으며 법 전문가들도 의견을 주고 자문 및 검토를 해주었다.

필자는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73년 군 제대 후 노동경제학 특히 고용·실업 문제를 전공하려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 그해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났고, 9월 30일 ‘김대중 씨 납치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각 대학과 교회 등 여러 곳에 뿌렸다. 10월 2일에 서울대 문리대, 법대, 상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급성신장염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 이 사건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잡혀갔다. 두 달 후에 나왔지만 유학은 물 건너갔고 취직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필자는 도시산업선교회,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 등 근로자 소모임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았다. 그런데 막상 근로자들은 경제가 아니라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했다. 체불임금 받는 법이라든지,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산업재해나 노조 결성 방법 같은

것들이었다. 당연히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노동법을 찾아보게 되었다. 당시 노동법 책들은 모두 한자투성이었다. 그리고 무척이나 학구적이었다. 노동자들이 읽기에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이래서 법 관련 질문들이 많구나 싶었다. 알기 쉬운 노동법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이 팔리면 출판사 운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1970년대 초에 여성노동자들로부터 새로운 노동운동이 나오기 시작했다. 산업선교회와 JOC에서 근로자 소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선교 차원이었지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선교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사실상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다. 기존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운동과는 사뭇 다른 방향이었다. 인천산업선교회와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앞장을 섰다. 인천산업선교회는 조지 오글(George Ogle) 목사와 조화순 목사가 중심이었다. 목사님들은 대성목재, 동일방직 등 현장에 직접 취업해 노동자 생활을 경험하고 산업선교를 했다. 자연스럽게 근로자 소모임이 만들어졌다. 1972년 최영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2학기 때부터 인천산업선교회 예비 실무자로서 조화순 목사가 지원하던 동일방직 소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동일방직에서는 소모임을 기반으로 1972년 5월에 민주화된 노조 집행부가 들어섰으나 몇 년 후 탄압받기 시작했다. 이른바 1976년 나체 시위 사건과 1978년 동일방직 똥물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영희는 1973년부터 부평수출공단의 몇 개 사업장 여성 근로자들을 모아 노동교육을 시작했다. 그 교육에 참여한 반도상사의 한순임을 중

심으로 1400여 노동자들은 1974년 2월 26일 근로조건 개선과 3월 5일 민주 노조 결성 방해공작에 대한 항의 파업을 하게 된다. 파업을 주도한 근로자들은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배후로 최영희를 비공개 수배했다. 당시는 유신치하이긴 긴급 조치하여서 그 탄압이 더욱 더 심했다.

필자는 1972년 군 생활 때 조영래 변호사와 결혼을 앞둔 이옥경으로부터 인천 산업선교회에서 일하던 최영희를 소개 받았다. 제대 후 자연히 최영희를 통해 산업선교회나 JOC 등과 관계 맺고 있는 근로자 소모임이나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관계된 노조 등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 노조 운동의 모델이었던 원풍모방이나 콘트롤데이터 등 노동조합에서도 강연했고 YH 노조 간부들과도 모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노동법 해설』도 쓰게 되었다.

1970년대 노동운동의 불꽃은 전태일 분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필자도 청계피복 노조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 찾아온 노동자들에게도 상담을 하게 되었다. 한 번은 서울 성수동의 에이원저지라는 사업장 여성 근로자들이 청계피복 노조를 찾아와서 필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평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성 근로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 성수동에서 한양대학교 정문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생겼다. 당시는 유신치하 1978년경이었다. 관할 경찰서장이 잘렸다고 하고 이 배후 수사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가 아닌 의외의 사람이 수배가 되었다고 한다. 청계피복 노조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청

소부가 필요하다 하여 필자가 광주지역에서 야학을 하던 전남대 출신 수배자를 소개했는데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도 다시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광주항쟁 당시 도청 시수팀으로 총을 네 발이나 맞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 오히려 더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유신치하에서는 기존의 노동조합운동뿐만 아니라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기관의 지원활동도 탄압받았다. 특히 유신정권은 인천의 조화순 목사나 영등포의 인명진 목사 등이 주도하던 도시산업선교회를 외부 세력이라 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시산업선교회’와 관계하면 직장이 ‘도산’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선동했다. 유신 마지막 해에는 경동교회 강원룡 목사가 주도하던 크리스찬 아카데미 실무자인 신인령, 김세균 등을 구속해 중간집단 노동교육까지 탄압했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쓴 총탄에 쓰러지면서 10.26 사태를 맞게 된다. 10.26 이후 이른바 일시적으로 ‘서울의 봄’이 찾아오면서 사복사태 등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와 연합해 롯데제과 신태웅 노조지부장은 어용 집행부를 뒤집고 임금인상 파업투쟁을 하게 된다. 1980년 5월 15일 경부터 10여 일간의 투쟁이었다. 5월 17일 계엄령 선포하에서도 파업농성을 통해 임금 78% 인상을 달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신태웅 지부장은 곧 당국에 끌려가 강제로 사직하고 만다. 필자는 당시 영등포 산업선교회 교육을 통해 만난 롯데제과 근로자인 정순희를 통해 당시 노조대의원이었던 신태웅을 만나 어용 집행부를 민주 집행부로 만드는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했다.

유신체제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폭압적인 전두환 체제하에서도 노

동운동은 무척 힘들었다.

1970년대의 노동운동은 경공업 분야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산업선교회 등 종교기관과 연대해 주도했다. 필자는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하에 서는 대기업 중화학공업 분야의 남성 가장노동자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학생운동도 1980년 ‘서울의 봄’이 실패하면서 학생 운동만으로는 군부독재를 타도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많은 활동가들이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이른바 노학연대를 모색하게 된다. 학생운동 활동가들에게도 또 남성 가장 노동자들에게도 노동 현장에서 밑으로부터 대중적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합법적 접근이 효과적이니 노동법 공부가 필요했다.

필자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법을 공부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자주적 노동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이 『노동법 해설』 첫 페이지에 나오는 “노동자의 자주성”이라는 글이었다. 마지막에 노동법의 역사 특히 6·25 전쟁 중에 부산 부두 노동자의 투쟁과 조선방직 쟁의 과정 속에서 탄생한 우리나라 노동법의 역사에 대한 글도 실었다.

현대그룹 노동조합 결성은 1985년 2·12 총선 전 1월 30일에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조합 결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노동법 해설』 책이 매개체가 되었다.

1982년 『노동법 해설』이 출간된 이후 전국 방방곡곡 사업장에서 근

로자들이 노동법에 관한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다. 작게는 체불임금 등에서부터 산업재해,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그리고 노조 결성과 어용 집행부를 민주 집행부로 바꾸는 방법 등을 묻기 위해 전화가 쇄도하고 직접 석탑출판사로 찾아왔다. 하루에 많을 때는 40~50명이 찾아왔다. 자연스럽게 노동운동가들이 모여 석탑노동연구원이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노동법에 관한 문의를 답하는 데 인력이 부족했다. 마침 서울 법대 대학원생인 이원재(변호사)가 지원해주었고 그를 통해 사범연수원생 20여 명이 도움을 주었다. 이종걸, 최원식, 김영선, 이재명 등이 그들이다.

사무직 근로자나 중간관리자들도 부당해고 등을 상담하기 위해 석탑노동연구원을 찾아왔다. 사무직 중에서는 일찍이 1983년에 한일투자금융(현 삼성증권)의 정일영이 찾아와 노조 결성 등에 대해 상담했다. 한일투자금융은 전근대적 노사관계가 심했던 곳으로 이들의 노조 결성과 투쟁은 금융권 특히 보험, 증권, 투자금융, 리스 등 제2금융권의 사무직 근로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1984년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곽태원, 홍순계 등이 찾아와 노조 결성 상담을 했다. 그리고 1985년 초 2·12 총선 분위기 속에서 현대그룹의 벽을 뚫고 최초로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큰 자극을 줬다. 이후 고려화재, 동양화재, 범한화재, 신동아화재 등에서 노조가 결성되었다. 또한 최재호를 중심으로 산은캐피탈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조 민주화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은 사측의 탄압에 대해 본격적인 연대투쟁을 하는 등 사무직 분야의 노동조합운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범한화재 노조는 1986년 5월 결성되었는데 그 후 심한 탄압을 받던 중 이상재 노조 쟁의부장이 1986년 12월 31일 전격 해고당하면서 복직을 위한 연대투쟁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박종철 군 고문 사건(1987. 1.14)이 일어나 정국이 어수선할 때였다. 1987년 3월 2일 전국금융 노조 사무실에서 10개 보험사 노조가 중심이 되어 점거 농성에 들어가자 사측은 폭력적인 강제해산을 시도했다. 오히려 이것이 사무직 노조원들의 분노를 유발시켜 이 농성투쟁 참여자들은 은행 노조를 포함 60개 노조 간부 450명으로 늘어났다. 이 투쟁의 승리는 13개 사무 금융 노조들이 4.13 호헌 반대 서명투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광주지역 생산직 4개 노조가 추후 참여). 당시에는 예술가, 교수, 신부, 종교인, 의사, 약사 등 많은 인사들이 4.13 호헌 조치 반대 성명을 냈으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고 조영래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칼럼을 썼다.

‘민심이 흉흉하다’는 말이 요즈음처럼 실감이 나는 시절이 드물었던 성실다. …… 작금의 개헌 서명에 참여한 교수들이 그 후 당했던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13일 현재 전국의 시국선언 서명 교수가 작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43개 대학 1380명에 달했다는 신문 보도는 어찌 보면 하나의 기적 같기도 하다.

이 대열에 대학교수와 성직자들만 아니라 대학원생들, 문인들, 연극인들,

화가들, 영화인들까지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실감한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금융 노조 산하 몇몇 조합이 한국노총의 호헌지지 성명을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나선 일이었다. 대기업에 소속된 봉급생활자들로서 이른바 ‘보통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은행원들이 보여준 이 같은 시민적 용기는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낸” 바로 그 한국인들의 높은 정치적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박해를 각오하고 발언할 수 있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요사이 얼마동안의 우울한 일들에 만 사로잡혀 지나치게 낙담할 것은 없다. 원래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 아닌가(『중앙일보』, 1987/5/16).

이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1987년 6월항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6·10 항쟁 첫날 사무직 화이트칼라들은 시위대에 박수를 보내는 등 지지를 했으며 6월 12일에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 5,000여 명이 모여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당시의 민주화운동은 주로 학생이나 재야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6월투쟁이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사무직 노동자 및 택시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택시기사들은 경적 시위를 통해 6월 항쟁에서 강한 연대감을 나타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울산에서 시작한 생산직 노동운동과 서울의 사무직 노동운동은 이른바 ‘7·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승화된다.

7월 24일 울산성당의 노동법 강연장에서 어용 노조 반대투쟁의 대열을 갖춘 후 현대중공업에서는 어용 노조 반대투쟁이 본격화되었다. 현대그룹 내의 노조 결성과 어용 노조 반대투쟁 열기는 경남 거제도 옥포조선소로 옮겨졌다.

8월 8일 12시 40분경 점심시간에 중기 사업부 크레인기사가 크레인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핸드마이크로 요구사항을 외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결성된 노조 임시 집행부의 중심인 크레인기사가 “불순세력이 회사 내에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자 중기사업부 근로자 양동생 씨가 반박하면서 공개토론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처음의 크레인 기사는 노조설립신고를 “회사 총무부장에게 넘겨주었다”고 했다가 근로자들로부터 “어용이다”라는 야유를 받았고 대신 양동생 씨가 임시 대표를 맡게 되었다. 8월 10일 정식 조합장 선거에서 양동생 씨가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새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8월 11일 거제 군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고 합법적인 대우조선 노조가 탄생하게 된다. 새 집행부는 임금 7만 원 인상 등 14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투쟁을 시작하자 사측은 폐업공고를 냈고 언론이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경영진이 있는 옥포호텔에서 14개 요구 조건을 수용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8월 22일 오후 2시경 전경과 대치하던 중 대우조선 근로자 이석규 씨가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부산의 노무현 변호사 등 재야

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8월 26일 임금협상은 타결되고 8월 28일 이석규 열사 장지 문제로 또 한 번 경찰과 충돌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재야 단체들이 거제에서 장례식을 치른 후 광주 망월동 묘지로 운구하던 중 경남 고성 3거리에 이르렀을 때 전경 2,500여 명이 시신을 폭력적으로 탈취해 이석규 열사의 고향인 전북 남원에 그 시신을 매장했다.

대우조선 노조 결성은 사측의 어용 노조 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대중적 집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반발하면서 만들어졌다. 아직 조직적인 대중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못한 속에서 8월 말 이석규 열사 시신탈취 규탄투쟁은 더 전진하지 못했다. 9월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대통령 선거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중심이 취약한 노동현장에서는 12월 대선을 놓고 노태우 지지파, 김영삼 지지파, 김대중 지지파, 민중당 지지파, 무당파 등으로 서서히 나뉘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열기가 가라앉았다.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자 노동조합운동은 다시 전열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1988년 1월 19일부터 16일간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월 4일 점심시간에 전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하자 총회 시작 17분 전에 요구사항 모두를 사측은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노동법 해설』의 저자로서 노조 대의원 교육의 강사로서, 처음 대우조선을 방문했다. 노조 대의원 교육 내용은 울산 성당에서 한 ‘노동법과 노동조합’의 기본에 덧붙여 노동조합법에 있는 ‘노동조합은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강조했다. 총회가 더 중요하고 대의원대회는 갈음하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은 자주 총회를 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 밑에 소의원을 두고 소의원들이 분임토의를 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대의원대회에 참여하여야 그것이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대회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원들은 각자 종교나 생각이나, 학력, 지역, 남녀 등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차이가 차별로 바뀌면 분열하게 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차이를 인정하고 내용이 풍부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단결이고 단결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첫 방문에서 필자는 도크와 크레인의 크기를 보고 무척 놀랐다.

그 전에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로부터 노동법에 관한 여러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항상 단계적으로 단결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권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이미 1987년 초에 저항의 횃불을 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상고문”이라는 이름의 유인물을 현장과 기숙사에 수천 장 뿌렸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던 젊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 것이라고 한다. 임금 실태 지적, 산재 처리 부당성, 퇴직금 지급 시일 문제, 통상 임금 계산 방법 등 노동법 문제를 제기했다.

2월 24일 국민저축 문제, 형식적인 노사협의회 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인물 “상고문 II”가 현장에 뿌려졌다. 3월 10일 근로자의 날에 노동자들이 쫓기할 것이라는 소문에 당황한 사측은 20여 명의 노동자들을 부서 이동시켰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부당 전직 철회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10여 명이 해고되고 노조 결성은 실패하고 말았다.

1987년 8월 11일 대우조선 노조가 1만여 명 집회 속에서 결성되자마자 이틀 뒤인 8월 13일 M16 소총을 만드는 국가 '가'급 방위산업체라는 악조건을 딛고 대우정밀노동조합이 경남 양산군 군수공장에서 만들어졌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성도 위원장이 앞장섰다. 대우정밀노동조합은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다', '우리 일은 우리 힘으로', '무지는 의존을 낳는다'라는 3대 원칙을 갖고 노동조합운동을 해 나갔다. 현대중공업이 대표자들을 파견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과 담판을 한데 반해 대우정밀 2,600명 조합원 가운데 480여 명은 동료들과 가족들의 지지 속에 1988년 4월 12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직접 담판하기 위해 서울 역 앞 대우빌딩까지 상경투쟁을 벌이다 바로 강제 연행된다. 그중 연행되지 않은 180여 명이 명동성당에 모여 10일간 농성을 하면서 4월 22일 사측과 고소 취하, 즉각 교섭 등을 합의했다. 이 대우정밀의 투쟁은 노동조합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필자는 대우정밀 노조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아 대의원 대회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나중에 제3자 개입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사실 필자는 석탑노동연구원장으로 매일 노동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밤 11시가 넘어 대우 측이 보낸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김우중 회장을 만나게 된다.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납치된 줄 알았다. 김 회장과 필자는 꼬박 밤을 새워 논쟁과 대화를 했다. 김우중

회장은 대우조선과 대우정밀 사태 배후를 필자로 지목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비공개 차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을 사실상 폐업시켜 도크는 거대한 수족관으로 만들고 그 지역을 관광지역화하겠다고 대우조선을 망하게 만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회사가 망하는 것은 주로 경영자의 책임이 있지, 왜 외부에 책임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영자보다 필자 같은 외부 사람에게 더 영향력이 있다면 경영자들은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용히 얘기했다.

김 회장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말해보라고 했다. 필자는 첫째 최고 경영자인 김 회장이 1년 중 100일 이상을 대우조선 현장에 가서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근로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면 생산성이 많이 오를 것이다, 둘째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주식으로 주어 비록 작지만 주주사원 형태로 만들면 임금인상 투쟁보다는 회사를 살려 주가를 높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셋째 분규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부인들의 최대 관심은 아이들 교육이므로 거제 지역 초중고 학교의 책상을 같이주고 거제 지역에 우수 교사가 올 수 있도록 교사특별 수당을 대우조선에서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논란 끝에 김 회장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아침에 필자와 함께 파업과 교섭 중인 대우정밀에 내려가 산고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다시 신장염이 도져 어려움을 겪었지만 격렬했던 노사 갈등이 순조롭게 타결되어 무척 기뻐다.

김우중 회장은 정말 100일간 거제에 머물며 약속을 이행했다. 대우조선은 그 후 회생했다.

1987년 7월과 8월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었다. 노동조합 결성과 어용 노조 반대 그리고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대부분 자주적 단결권이 단체교섭 단체행동 특히 파업으로 나타났다. 울산 거제 등 대단위 사업장에서 시작한 노동운동은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중소기업이나 택시, 버스, 지하철 사업장 그리고 언론, 병원 등 사무·전문직에서도 노조 결성과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이어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87년도에 일어난 파업건수는 3,749건 파업 참가자 수는 126만여 명으로 1985년도 파업건수 265건 파업 참가자 수는 2만 9,000명, 1986년 파업건수 276건 파업 참가자 수 4만 7,000명에 비하면 놀랄 만한 수치이다. 그렇지만 1987년 12월 대선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 대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파업건수 1,873건 파업 참가자 수는 29만여 명으로 1989년도는 파업건수 1,616건 파업 참가자 수는 41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노조 조직률이 9.9%로 사상 최저이지만 1989년도에는 19.8%였다.

파업은 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용 노조가 있는 경우 반대투쟁 그리고 임금인상투쟁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법을 인정하라는 데서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필자의 『노동법 해설』이 조합운동의 교과서가 되었다. 『노동법 해설』은 1982년도에 처음 출간했는데 당시 출판계에서는 1,000부도 팔리지 않을 것이

라고 했다. 정말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았다. 주로 퇴직금계산 방법과 산재보상, 해고의 억울함 등에 대해 문의가 있을 뿐이었다. 3저 호황이 시작돼 전세 값 등 물가는 엄청 올랐으나 1985년 1월에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 3%를 제시하자 그때부터 『노동법 해설』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다. 사무직들도 생산직들도 노조 결성이나 노동법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심이 높아졌다. 1986년부터 『노동법 해설』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다. 1987년도 7·8월 대투쟁 때는 책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무려 100만 부가 넘었다. 크게 조명 받는 사업장의 노사협상 TV 뉴스에는 양쪽으로 갈라 앉은 노사대표단들 앞에 어김없이 『노동법 해설』 책들이 놓여 있었다. 팔리는 만큼 상담문의와 교육이 이어졌다. 아마 대부분의 노조 간부들이나 열성 노동자들이 이 책을 읽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2. 석탑노동연구원의 상담과 교육

당시는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석탑노동연구원에 직접 찾아와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노조에서 필자를 불러 노동교육을 요청하곤 했다. 필자와 석탑 최영희 대표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석탑노동연구원은 상담 및 교육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7월 이후 1989년 5월 필자에게 수배가 떨어질 때까지 1년 10개월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강연 및 교육과 상담으로

바빴다. 단위 노조뿐 아니라 지역연합교육도 많았다.

대우자동차에는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미 1970년대 초에 노조 민주화투쟁이 있었지만 유신 이후에는 숨만 쉬는 노조였다. 여기에는 대졸 출신 현장 노동자들이 여럿 있었다. 이들은 소모임을 만들어 현장활동을 해왔다. 특히 장지훈 등 인천기계공고 출신들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대졸 출신 박재석과 결합하여 노동법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필자는 이 모임에 여러 번 초대받아 질의응답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노조 민주화와 임금인상투쟁에 중심적 역할을 했다. 경인지역에서 대우자동차 노동자투쟁의 영향은 매우 컸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경인지역 부천 경원세기 노동자들의 노조 민주화투쟁은 당시 모범이었다. 경원세기 노동자들은 “어용노동조합을 민주적인 노조로 바꾸는 것은 오직 전체 조합원의 힘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야 한다”라는 원칙하에 투쟁에 나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사무직도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단결의 폭을 넓히면서 28일간(1987년 8.11~9.7)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어용 노조를 바꾸고 현장 노동자 대표(장진수)를 유일한 교섭대표로 인정해 민주적인 집행부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소위 학출로 매도당한 장민석 등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승리를 쟁취했다.

이보다 일찍 장민석은 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고 1981년 9월 경원세기 기능공으로 입사한 후 1983년 노조 대의원, 1984년에 노동조합 기획부장, 1985년에는 교육선전부장을 맡으면서 노보를 창간하고, 점심 시간에 부서별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면서 일상활동을 전개해 나갔

다. 위기를 느낀 사측은 1985년 7월 1일 노조위원장의 동의서를 받아 장민석 등 3인을 서울본사 및 영업부로 인사발령을 냈다. 사측은 장민석이 한양공대에 1년 다닌 것을 들춰내 이른바 '위장 취업자'라고 매도하는 유인물을 현장에 배포하면서 그들을 고립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오히려 점심시간에 조합원들이 200~300명씩 모여 가족수당을 요구하는 등 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장민석 등의 출입을 막자 조합원 스스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자발적인 모임들이 만들어져 싸움은 지속되었다. 만 4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했고 노조 간부를 하면서 현장활동을 충실히 한 결과였다. 장민석은 해고되었지만 100일간 복직요구 출근투쟁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부당전직 및 해고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는 등 장기적인 투쟁을 계속했다. 결국 1987년 7월 1일 2년 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본격적인 조합원총회투쟁을 준비했다.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맞으면서 승리하게 된다.

경원세기 노동자들은 어용 노조를 민주 집행부로 바꾸는 문제와 해고자 복직 등 법적인 여러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석탑노동연구원과 많은 상담을 하며 해결해 나갔다. 필자는 가족의 참여와 현장 기반 없이는 이른바 위장 취업자로 매도당한 해고자 복직투쟁은 승리하기 어렵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사무직을 관리자로 매도하기 보다는, 그들도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동료애가 있을 때 단결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했다.

경원세기 노조가 부천에서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면 성남에서는 1987년 8월 동양정밀(OPC) 민주 노조 건설투쟁이 있었다. 7·8월 노동자 대

투쟁 과정 속에서 동양기계(OMC), 오텔코노동조합이 탄생하여 1988년 초부터 동양정밀 노동조합과 함께 그룹 3사 공동 임금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첫째 작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단결하여 절대로 노·노 싸움을 하지 않는다. 둘째 단위사업장 및 그룹 전체 노동자의 단결 그리고 가족까지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워 총회투쟁과 가두평화행진을 통해 승리하였다. 가두투쟁 과정에서 부인들 앞에 전경들은 힘을 쓰기가 어려웠다.

이 투쟁은 OMC에 다니던 학생운동 출신인 오혜옥과 학술 활동가인 남봉우 등이 함께 1년여 전부터 준비한 근로자 소모임 활동 결과였다.

여기에서도 필자는 교육이나 상담을 하게 된다.

이후 동양정밀의 손길수 노조위원장이 한국노총 성남지역지구협의회 의장이 되면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한국노총에 반대하던 노조들 모임인 성남노조협의회(성노협)와 통합을 추진, 전국 최초로 노총 계열과 민주노총계열 노조가 하나가 된 성남노동조합연합(성남노련)이 탄생했다.

당시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조 결성이나 어용 노조 민주화투쟁이나 임금인상투쟁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됐다. 또한 노조 상집 및 대의원 교육, 때로는 전 조합원 교육 등을 하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노동법 해설』이 매개체가 되었다. 서울지하철도 그렇고 사무직은 물론 동아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 노조와 서울대 등 대학병원 노조도 그와 같았다.

서울지하철 노조 결성은 처음 지하철 노동자 이철호가 석탑노동연구원을 찾아온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긴 시간을 들여 얘기를 들어보니 인

품이 좋고 현장 기반이 탄탄해 보였다. 보기 드문 성실한 현장활동가라는 확신이 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지하철이라며 찾아왔다. 구로공투의 해고자 김준용의 매형 배일도였다. 선동가 기질도 있어 보이나 아직 현장 기반은 없는 것 같았다. 김준용의 도움으로 의욕은 충만했다. 난감했다. 이런 경우 시작부터 조직 갈등이 생기기 딱 좋은 케이스였다. 둘을 함께 만나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다른 생산직 공장의 노동운동과 다르다. 공익 사업장이므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 현대나 거제 대우 등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고루 부서별로 3교대에 맞춰 결성식에 올 사람을 모으기로 하고 위원장을 누가할지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청호 씨가 양보를 했다. 사실 미리 준비해서 결성식에 자기 팀이 많은 사람이 선출되기 마련이다. 결성식엔 예상대로 이청호 팀이 훨씬 다수였다. 그러나 이청호는 참석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약속대로 배일도를 지부장으로 밀고 자신은 사무장이 되었다. 오랫동안 현장을 지키며 바른길을 가는 운동가였다. 필자는 상담과 함께 서울지하철 노조 상집 대의원 교육에 여러 차례 강사로 초빙받았다.

하루는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들이 울산으로 오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몸이 몹시 아파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노조 파괴 전문가로 불린 제임스 리가 정보를 잘못 알고 한밤중에 언양 석남사 근처에서 분임토의를 하던 현대정공 간부 교육장에 버스 한 대에 폭력배를 거느리고 난입해 “장명국이 어디 갔어”

라고 외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마당에 정공 노조 간부들을 모두 엎드리게 하고 몽둥이질을 해대도 없다고 하자 다시 차를 돌려 울산의 해고자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토론 후 잠이든 해고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권용목 위원장이 그 과정에서 필자 대신 폭력배에 짓밟혀 팔이 부러지는 사태도 있었다. 고인에게 미안할 뿐이다.

울산 현대그룹에서의 노동교육은 무척 어려웠다. 가는 곳이 외길이고 검문도 많아 오토바이 부대가 필자를 태우고 중공업 사택단지 내의 모임장소로 데리고 가서 교육이 행해졌다. 올 때는 대개 그들의 옷을 입고 호위 받아 나오곤 했다. 한번은 울산 시내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지프차가 쫓아와 골목길을 몇 km 뛰어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1988년 4월 28일 아침이었다. 권용목과 중공업의 김진국이 구속되어 있을 때였다. 울산에서 전날 밤늦게 올라온 최영희에게 내일 진국이를 울산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 펄쩍 뛰었다. 감옥에 있는 진국이를 어떻게 만나느냐고. 어젯밤에 진국이가 선생님하고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고 전화를 했다. 어떻게 나왔냐 하니 옥중 출마 문제를 담판 지으라고 사흘간 비밀리에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최영희는 어제 진국이 엄마를 만났는데 출마 포스터 사진 찍으러 구치소에 갔다 오셨다던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진국이 목소리냐고 묻는데 경상도 사투리에 잠결에 들어 애매했다. 최영희가 대신 나가보겠다고 해서 다음날 함께 울산으로 갔다. 태화호텔 커피숍이다. 나는 터미널에서 가까운 엔진의 노조 간부 이채왕의 집에서 기다렸다. 약속시간 20분쯤 지나 최영희에게서 다급하고 작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

다. “속았다. 지금 포위당했다. 1시간 내로 연락 안 하면 피하라”며 끊었다. 연락할 길도 없으니 어찌됐는지 답답할 뿐이었다. 30분쯤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어찌어찌 기지를 발휘하고 택시운전기사의 불법 유턴으로 이제 빠져나왔으니 살았다고 말하더니 “아니다 지금 그놈들이 다방 밖에 왔다”며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화장실로 도망가라고 말했지만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집요하게 승용차로 4명이 따라붙었지만 용케 빠져나온 최영희는 지금도 자기 아니었으면 돌에 매달려 동해바다 물귀신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큰소리친다. 그리고 1주일 후 5월 6일에 현대건설 노조설립추진위원장 서정의 씨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후에 책임자로 처벌받은 최 모 이사가 폭력배들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사주한 건이었다. 이명박 회장 때다.

인상 깊었던 교육도 있다. 『노동법 해설』을 읽은 나이 든 거제 삼성중공업 근로자가 서울로 찾아와 교육을 요청했는데 함께 내려가 보니 밤 9시에 파도치는 해변에 근로자 50여 명이 앉아 있었다. 어두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파도소리에 목소리를 힘껏 내어 이야기 했다.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사측은 해고 대신 해외로 인사발령을 내 마무리 했다고 들었다.

포항의 포스코에서도 『노동법 해설』을 읽은 노동자들이 찾아왔다. 자신들의 『노동법 해설』 공부모임이 있는데 포항만 끝의 구룡포 꼭대기에 비공식적으로 모임에 와서 노조 결성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칠후 같은 밤에 외딴 건물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촛

불을 켜놓고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다. 보통 재벌 대기업 사업장들은 민주 노조를 강조하는 데 반해 여기는 민족포철 노조를 강조했다. 상당한 궁지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바로 이 모임이 드러나 모임 참석자들이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 바로 노조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 모임 참석자들은 끈질기게 사업장 내의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노조건설 추진위원회를 거쳐 결국 노조를 결성했다. 처음으로 치러진 직선제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3대(1, 2대는 간선) 박근기 노조위원장은 당시 필자가 구속된 상태여서 대신 최영희 석탑대표를 강사로 초빙했다. 이 강연에는 45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수배 1년 뒤 검거되어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100여 개 노조 교육을 집중 추궁했다. 100여 개 교육이 녹취 요약되어 있었다. 특히 방위산업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등과 분단하의 노동운동 교육 등을 문제 삼았다. 기소된 것은 1988년 방위산업체인 대우정밀 노조 집행간부 및 대의원들에게 ‘단결력 강화 방안’과 ‘노사관계의 흐름’ 등을 주제로 한 교육과 1989년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시지부 단체교섭위원 및 노조위원장 11명에게 상담한 것을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에는 택시 노조의 단체교섭 결렬 후 4월 17일 보라매 공원에서 ‘완전월급제 쟁취’ 결의대회 및 5월 1일 시청 앞 경적시위와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214개 가입 노조의 파업 등을 문제 삼았다. 수배 시작은 제3자 개입이었지만 수사는 수배 중에 노동 전문 계간지인 『새벽』에 필자가 쓴 10편의 논문을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넘어졌다. 1990년

7월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1992년 1월에 출소했다. 수배 상태에서도 숨바꼭질하듯 노동교육과 상담을 계속했다.

하루는 한진중공업 노조에 교육을 갔는데 부산 영도다리를 막고 경찰 수백 명을 풀어 우리를 잡으려 하여 산속에서 몇 시간동안 숨었다가 한 밤중에 탈출한 적도 있다.

수배 중에 심일신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을 만들었는데 한번 검토해보자고 하여 노조 사무실로 찾아갔다. 마침 노조 사무실에 담당 형사가 찾아와 내 등 뒤에서 간부들에게 필자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오면 꼭 연락하라”는 말을 했다. 당시는 노조에 형사들이 자주 찾아올 때였다. 노조 교육 중에 필자를 잡으러 온 경우도 있다. 노조원들이 도와 주어 여러 번 위기를 모면했지만 결국 모 노조의 간부 집에서 당면문제 해결책을 교육하다 이를 도청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3. 생산직에서 사무전문직 노동운동으로

이미 1987년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는 석탑노동연구원과 관련이 있는 노동상담소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 노동상담소들은 지역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던 학생운동 출신들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무척 헌신적이었다.

부산이나 창원, 광주, 익산,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등에서는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전부터 학생운동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 소모임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때 적극 참여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 서면에 있던 진양고무, 대양고무, 삼화고무, 동양고무와 사상에 있던 국제상사 등에서 고무공장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1985년부터 필자는 하영권 등 학출 활동가들, 삼화고무 박홍대, 대양고무 김근배 등 노동자들과 소모임을 했다. 울산에서처럼 이들은 현장에서 일상활동 등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6월항쟁 때 시민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가두시위를 했고 이어 7·8월 노동자 대투쟁 때 적극 참여했다. 대양고무에서는 굴뚝 고공투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고 대우정밀 이성도, 향만 이병완, 고려피혁 김준환 등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7·8월 대투쟁에 앞장섰다. 이후 이성도 대우정밀 노조위원장은 새로 만들어진 60개 노조를 중심으로 부산·양산·김해 노조협의회를 결성했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이 밀로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한국노총과 다른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표 1〉은 당시 만들어진 지역노조협의회들이다.

지역노조협의회뿐만 아니라 단위노조 틀을 넘어선 연합조직으로서 산업·업종별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는 사무전문직 노동조합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기존 노총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동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1989년 4월 30일 당시 새롭게 만들어진 산업업종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특히 필자는 사무전문직의 산업·업종별 조직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

〈표 1〉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만들어진 지역노조협의회

명칭	가입 조합 수	가입 조합원 수	결성 일자	대표재(소속 노조)
마산·창원노조연합회	38	30,000	1987.12.14	이흥석(코리아타코마 노조)
전주민주노조연합	9	1,300	1988.4.16	이석행(대동중공업 노조)
서울지역노조협의회	120	36,000	1988.5.29	단병호(동아건설창동지부)
인천지역노조협의회	70	9,000	1988.6.25	최동식(대행: 남일금속 노조)
전라북도노조협의회	38	7,400	1988.8.21	최기해(성일통상 노조)
경기남부지역노조연합	45	9,000	1988.12.28	임석순(경원제지 노조)
부산·양산·김해공대협	60	18,000	1989.1.12	이성도(대우정밀 노조)
광주지역노조협의회	15	2,300	1989.3.5	박중현(대우케리어 노조)
성남지구노조총연합	90	12,000	1989.5.1	손길수(동양정밀 노조)

〈표 2〉 1989년 4월 30일 당시 새롭게 만들어진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연합 현황

명칭	대표자명	단위 조합 수	조합원 수
사무금융노련	최재호	91	16,000
언노련	권영길	43	15,000
병원노련	양건모	120	25,000
연구전문노협	박태주	45	13,000
민주출판노협	이광호	22	2,200
유통노협	박성덕	14	7,000
외노협	신기용	100	15,000
대학노협	이희동	88	10,000
시설노협	차정훈	52	6,000
건설노협	배석범	40	12,000
	계	615	121,200

들의 노조 결성이나 조합교육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다.

필자는 『노동법 해설』을 쓰면서 어떻게 노동법이 6·25 전쟁 중에 제정될 수 있었는가와 4·19 공간에서 어떻게 교원 노조가 결성되었고

5·16으로 해체되는가의 두 가지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가졌다.

1951년 여름의 부산부두 파업과 1952년도의 조선방직 쟁의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제정(1953.5.10)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4·19 이후 만들어졌다가 5.16으로 없어진 교원 노조가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에 의해 다시 탄생되기를 바랐다. 5공 치하에서 고 유상덕 교사와 이수호 교사 등이 중심이 된 YMCA 교사 모임은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전국교사협의회’로 발전한다. 필자는 경남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사 수백 명이 모여 전국교직원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강사로 초청받았다. 필자는 참교육을 강조했다. 이 모임은 수많은 고난을 거쳐 합법적인 전교조가 된다.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석탑노동연구원에는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찾아왔다. 한국일보 최해운, 동아일보 김창희, 중앙일보 이근성 기자 뿐만 아니라 서울신문, 부산일보, KBS 등에서도 언론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필자를 만나러 왔다. 특히 동아일보 정치부 김창희 기사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1987년 봄부터 노조 결성을 준비하면서 법적 절차에 대해 필자의 조언을 구했다.

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다. 일찍이 유신 치하에서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언론자유투쟁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필자는 언론인들에게 공정보도를 강조했다. 대부분 노조에는 공정보도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수배 중에도 언론 노조 교육에 참여하면서 언론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수배 중에 하는 교육이어서 대체로 노조 간부들과 밤을 새며 대화와 토론을 했다. 언론사 구조도 잘 알게 되었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언론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새기게 되었다. 필자는 이때의 만남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주간내일신문』을 창간하게 된다. 2000년부터는 주간에서 석간 일간지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이나 산업·업종별 노조조직과 함께 필자는 현대 및 대우 등 재벌별 노조협의회 조직에 관심이 많았다. 재벌들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필자는 재벌체제 대신에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만들어져야 한국사회에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뿌리내린다고 생각했다.

현대그룹의 경우 1988년 10월 말 현재 울산지역 15개 노조와 경인지역 6개 노조 총 21개 노조로 현대그룹 노조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현대그룹 노조협의회 의장이었던 권용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룹 차원에서의 제도와 관습을 극복하는 길이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깨달았다. 회사가 그룹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도 전 계열사 노조가 연합해 그룹 측과 직접 부딪치는 수밖에 없었다. 사실 ‘현대그룹 노조협의회’의 탄생은 모든 것이 그룹회장 한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각사의 경영실적 등에 관계없이 그룹적 차원에서 임금인상이 실시되며 모든 제도가 종합기획실에 의해 일괄통제되는 현대그룹의 중앙집권식 가부장적 지배질서가 가져온 필연적 귀결이었다(계간

지 『새벽』, 5호, 209쪽).

현대그룹에 이어 대우그룹, 대림그룹, 쌍용그룹 등에서 그룹 노조협의회 등이 만들어졌다.

지역별 노조협의회가 전노협으로 발전하고 산업·업종별 노조, 그룹별 노조와 결합하여 한국노총과 다른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게 된다.

필자는 지역별 업종별 재벌별 노조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지만 두 차례의 수배와 구속으로 발이 묶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필자가 단위노조 교육에 초청을 받아 갈 때마다 가능하면 현장을 지나가 보려 하거나 회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다. 노조위원장과 함께 지나가다 보면 현장 노동자들과 노조위원장이 얼마나 가까운가 또는 거리가 있는가를 감으로 느끼게 된다. 상부 노조 활동을 많이 할수록 현장 노동자와 거리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어려워진다. 또 회사 내의 노동조합 사무실로 찾아갈 수 없을 때는 가능하면 대의원 등 열성조합원 집에서 노조 간부들을 만나려고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찾아갈 때는 술 대신 그 집 가족의 아이들 연령에 맞는 선물 즉 책이나 과자를 사가지고 갔다. 그리고 되도록 금연과 절주를 강조했다. 가정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운동은 성공할 수 없고 논쟁이 심해 노조 간부들끼리 분열하면 미래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필자는 논쟁보다는 생활에서의 모범을 강조했다.

4. 이념보다 생활의 모범이 중요

당시에는 운동권들 속에 이른바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 CA(제헌의회) 등 이념적 논쟁이 치열했다. 대학에서 시작한 이 논쟁은 학생운동권을 통해 노동운동 쪽으로 옮겨와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7년 12월 대선에서 범민주단일화, 비판적 지지, 민중후보론 등으로 나뉘어져 노동조합운동도 주춤하던 시기에 노동현장에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 접목되면서 노동조합운동의 단결을 해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현장의 생활보다는 머리로 하는 이념이 판치게 되면서 노동자 대중과 간부들의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면서 학생들은 학생운동만으로는 군사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노동운동과 함께하지 않으면 민주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자각하에 많은 청년학생들이 노동현장으로 투신하기 시작했다. 경원세기의 장민석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지금도 창원 두산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석도 1981년에 당시 한국중공업 사내 직업훈련원에 입사하게 된다. 필자는 1980년에 서울지역 야학연합회 교육에 강사로 초빙되어 장민석과 주재석을 처음 만났다. 장민석은 연합회 회장이었고 주재석은 핵심 간부였다. 주재석은 비파괴 검사공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자 소모임을 만든다. 그는 1985년에 소모임 멤버인 김창근 등과 함께 노조를 결성하려다 해고되었다. 그는 마산 창원지역에서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때 30여 개 사업장의 노조 결성의

법률상담과 노동교육을 지원했다. 그는 교사를 사직하고 노동운동을 시작한 문진현과 함께 노동교육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던 중 1990년에 사측과 복직합의를 했으나 그 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된다. 결국 그는 1994년에 복직해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직선제로 당선된 노조 간부가 된다. 튼튼한 현장 기반 덕에 35년째 근무하고 곧 정년을 맞는다. 필자는 주재석이 만든 근로자 소모임에 자주 초대되어 노동법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을 했다. 1987년 6월 항쟁이나 7·8월 대투쟁 이전부터 이러한 소모임은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도시마다 만들어져 있었다.

사실 이들의 가장 힘든 점은 자신들이 학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료 노동자들의 태도 변화이다. 필자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다. 1979년 근로자 소모임을 할 때 술에 취한 근로자가 “왜 우리 노동자를 돕느냐. 그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해라”라고 물을 때 당혹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솔직히 이야기 했다. 실업 고용문제를 전공하려고 했으나 김대중 씨 납치사건 유인물 사건으로 외국을 못나가 이제 근로자들을 만나 실상을 알고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결국 『노동법 해설』이나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 책을 썼다. 또 한국경제에서 노동자의 역할이 더 높아질 것을 바라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수긍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간 학출들은 참으로 막막하다고 했다. 여기에 NL이니 PD니 CA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를 이용해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색안경을 쓰면서 간극이 생긴다고 했다.

필자는 학출 현장활동가들에게 말보다는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생활인의 모습이 없으면 일반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일반 노동자들은 이념이나 분파보다 성실한 생활과 정직한 자세를 요구한다. 특히 분열을 싫어했다. 이념이나 분파로 현장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 아주 짜증을 냈다. 현장의 '일상 활동 없이 노동운동 없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작은 승리 없이 커다란 승리는 없다는 생각이다. 유비무환과 필사즉생이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또한 1980년대 초부터 현장에 투신한 학출 활동가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해고되면서 지역마다 노동상담소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상담소들은 노동법을 중심으로 석탑연구원과 유기적 연관을 맺었다. 이 상담소들은 7·8월 노동자 대투쟁 과정을 통해 성남 노련과 같은 지역별 노련들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를 하면서 이른바 연대투쟁이 활성화되었다.

동시에 1987년 12월 대선과 1988년 4월 총선 그리고 NL, PD, CA 등 학출 활동가들의 정치·이념적 갈등은 노동운동 상층부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1990년 이후 노동운동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필자는 대선과 총선에서 후보자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권을 가진 사람, 즉 유권자 입장에 서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민중연합 관점에서 서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 전략으로는 당선 가능한 야당에 힘을 모아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역부족이었다. 권력적 관점 즉 후보자 중심의 사고가 아직은 지배적

이었다.

NL, PD, CA 논쟁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계에서 시작된 사회구성체론은 학생운동권에서 NL, PD, CA 논쟁으로 바뀌었고 이들이 펼치는 논리는 우리 남쪽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념논쟁이었다. 필자는 NL들에게는 북쪽에 기대서 하는 운동보다는 남쪽에서 스스로 하는 자주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PD들에게는 분단과 민족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CA들에게는 혁명보다는 단계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특히 NL 내부에는 북쪽의 주체사상 이념이 대세를 이루었다. 필자는 주체사상에 반대했다. 하지만 일찍이 노동조합 교육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를 강조해왔다. 공안당국이나 일부 활동가들은 이렇게 주체와 자주를 강조했다고 해서 주사파에 호의적이라고 몰아세웠다. 필자는 우리 문제를 북한에 기대거나 사상을 앞세우면 현장 노동운동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라는 것이 평소 신념이었다. 교육을 할 때마다 사상, 이론보다는 생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은 21세기를 앞둔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상대성이론이나 불확정성의 원리가 현대사회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시 말해 각자 개성과 자아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사회변혁운동이 출발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자주라고 주장했다. 바로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획일적인 자주 즉, 수령론으로 나가는 개념과 아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처럼

논리나 필연보다는 개성과 자아를 중시하는 불확정성 즉 개체와 우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3차원의 근대철학이어서 현대의 새로운 시공간의 4차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대에는 아인슈타인의 장(場, field)의 개념이 중요하다. 필자는 그래서 만남과 대화의 장을 중시했다. 항상 현장에서 '각자 자주를 기반으로 서로 민주를 중심으로 함께 통일'을 하는 분임토의로 의사결정하기를 바랐다. 또한 봉건제를 거쳐 자본주의를 넘어 반드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기존의 사회발전 필연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와는 다르다. 사람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지 만들어진 이념 테두리 속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문화와 밀접한 종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므로 일단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종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진보, 보수로 나누는 근대철학의 사고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았다. 기존 운동권들과는 다른 생각이다. 일반 대중들은 필자의 이런 생각을 좋아했다. 특히 한문을 덜 쓰고 가급적 쉬운 우리말을 쓰니 더 좋아했다. 예를 들면 '노동'을 '일'로 표현하고 '노동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또 '임금'을 '폼샷'이라고 하고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어려운 표현을 '폼을 판다'는 말로 이야기하니 아주 쉽게 이해했다. 일하거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

든다고 했다. 이것이 필자가 쓴 책이름을 『밥·일·꿈』이라고 한 이유이다.

그러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상층부는 기존의 사상, 이론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노동운동은 분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약화되기 시작했다. 노조 조직률도 하락했다.

운동권들은 1987년 이후에도 대부분 생산직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었다.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투쟁의 중심에 두려 했다. 필자는 노동자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영업직 전문직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논쟁도 했다. 물론 1970년대 노동운동이 생산직에서 출발했고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현대 대우 등 개별 대기업 생산직에서 출발했지만 사무금융뿐만 아니라 병원, 언론 나중에는 교사 등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필자는 현대사회에서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생산직은 점차 그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오히려 서비스업의 사무, 영업, 전문직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 분야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노동운동의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직은 관치금융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해야 하고 언론 노동자들은 언론 자유와 민주 언론 그리고 교사들은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를 중심으로 1988년 5월 석탑노동연구원에서 노동전문잡지인 계간지 『새벽』을 발간했다. 『새벽』이라는 제목 위에 “나라 사랑 직장 사

량”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기존 운동권으로부터 개량주의니 새마을운동 같다느니 하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특히 직장 사랑에 대해 많은 비난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가정 사랑 직장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많은 현장 근로자들은 필자 주장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 『새벽』지는 1993년 1월 20일 통권 15호까지 발간되었다.

필자는 1989년 수배되어 1990년 5월에 구속되어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온 후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운동본부(일대본)’를 만들어 ‘당선 가능한 야당에 힘을 모아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자는 유권자운동을 하다가 수배를 받고 1993년 1월에 다시 제3자 개입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일대본’은 수첩을 만들어 노동조합과 노동상담소 등을 통해 약 10만여 명에게 수첩을 판매해 그 후원금으로 신문광고를 내는 등 평화적 정권교체에 힘을 기울였다는 이유였다.

1990년대 초 두 번의 감옥 생활에서 성경과 불경을 읽고 또 현대물리학과 현대생물학을 공부하면서 필자의 생각은 더 확고해졌다. 그래서 기존 운동권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좀 더 새로운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셋이 모여 삶이 된다』라는 책을 썼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2차원의 사고와 이분법적인 논리가 지배했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근대 사회에서는 3차원의 변증법적 논리가 중심이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시공간의 4차원적인 상생의 사고가 펼쳐나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5. 발상의 전환 없이 내일은 없다

재벌 대기업에서 시작한 노동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내수 소비를 촉진시켰다. 내수소비는 당시 한국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87년의 성장률은 12.5% 1988년 11.9%로 그 이전보다 높아져 국민소득 1만 달러 중진국에 진입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 활성화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경쟁을 하는데 국내에서 일정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로 나아가기 어렵다. 많은 제품들이 국내 판매에서 하자 사항을 고친 후에 해외 판매를 하지 않으면 클레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이 이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 했다.

이제는 노사문제를 어떻게 푸는가가 기업 생존의 필수 조항이 되었다. 분규가 장기화되면 기업은 결국 망한다. 그러나 노사관계를 전근대적 관계에서 근대적 관계로 전환시키고 다시 인적자원이 기업 생존에 결정적이라는 인식을 경영자들이 하게 되면 결국 세계적 기업으로 전환된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나 경영자들 나아가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운, 조선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필자는 2010년 6월 현대중공업 오종쇄 노조위원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상집 대의원 수련회교육을 요청받아 '21세기와 현대적 노사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필자는 이 교육에서 노조 간부들에게 “지금부터 노사가 모두 변하지 않으면 조선업 세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도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대적 노사관계에서 시장 중심의 현대적 노사관계로 바뀌어야 하며, 경영도 근대적 경영에서 근로자도 사원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는 현대적 경영으로 바뀌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의 수출만으로는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는 어렵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민주화가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다.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기업 내부의 현대적인 노사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적인 경쟁격화는 새롭게 비정규직 문제와 직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날의 노동운동 방식으로는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에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고용문제 즉 실업, 실직과 비정규직 등 직장의 불안정성 문제가 중심으로 등장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근로조건 개선은 말할 수 있고 삶의 안정성과 행복이 확보된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장의 안정성이 이 시대 최고의 선이 되고 있다. 기업 역시 지역적 경쟁을 넘어 세계화된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사 모두 직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우리의 재벌체제도 바뀌고 있다.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0대 그룹 중 16개가 해체되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삼성 그룹은 삼성전자를,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으로 개편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 없이는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 모두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없다.

특히 지난날처럼 노동조합운동을 한다면 노조의 미래도 밝지 않다. 노동조합은 이제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회사법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법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은 3%가 있으면 가능(상법 상장사 특례에 따르면 상장기업 3%, 자본금 1,000억 이상인 경우는 1.50%)하며 회계장부 열람청구권도 3%(상장기업은 0.10%, 자본금 1,000억 이상의 경우는 0.05%), 이사/감사 등 해임청구권도 3%(상장기업0.50%, 상장자본금 1,000억 이상은 0.25%)이다.

노동조합도 소유와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날 '노동법'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들 경제법들을 적극적으로 공부해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운동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

필자는 사원주주가 중심이 되는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주사원은 소유와 경영과 노동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근로자 사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주주가 되어 투명 경영과 책임 경영, 윤리 경영을 해나가야 이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노동운동은 이를 통해 '지주를 기반으로 민주를 중심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이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등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사원주 주제를 통해 노사갈등 해소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초기에 소기업을 거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갔다.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 속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생존이 불투명하다. 과거의 노사관계로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없다.

필자는 사양산업인 종이신문 언론사에서 사원주주형으로 창업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7년간의 주간신문 경영과 15년간의 일간지 경영을 통해 사원주주형 자주관리 경영이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안된다~~

이 글을 고 권용목, 고 이성도, 고 손길수, 고 장진수, 고 유상덕님에게 바칩니다.